



가 정 통 신

인권 존중 학부모 연수 자료

2023학년도
웃터골<제 27호>

☎ 14923 경기도 시흥시 은행고길 18 ☎(교무실)070-7096-7707 ☎(담당자)070-7096-7715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생활 속에서의 형제애, 가족 간의 예절, 나아가 이웃 간의 예절 등이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의 인권존중 교육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친인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 자녀의 입장이 되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올바른 인권지킴이가 되기 위해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 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원칙

1. 자녀와의 대화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공부해라!, 너 왜 이것 안 했니? 그렇게 해 놓아라!” 등의 명령이나 지시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가?
- ② “너 그러면 집에 가서 혼내 줄 거야, 너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얘기할 거야” 등의 주의를 주거나 협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았는가?

2. 자녀의 가치와 존경을 나타내는 언어를 되도록 많이 사용한다.

- ① “나는 네가 책임감이 강하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믿는다.”
- ② “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3.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 경청을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문제에 적극적 경청을 해야 한다. 적극적 경청을 통하여 내 자녀가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지, 혹은 자아정체감 혼란에 빠져 있는지, 친구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학교생활의 부적응 문제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을 함으로써 자녀에게 있어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알아내는 것이다.

2023. 3. 20.

웃 터 골 초 등 학 교 장

(뒷면계속 ↓)

♥ 자녀들과 함께 우리 가족의 인권지수를 체크해 보시고, 인권과 관련한 소중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우리 가족의 인권 지수는 어떠한가요? 어린이가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 인권지킴이 ▶ 4개~7개 : 인권노력이 ▶ 8개 이상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 **부모님께서 체크(v)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8개 이상 : 인권지킴이 ▶ 4개~7개 : 인권노력이 ▶ 3개 이하 :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0. 아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			